

연구논문

착의내용으로 본 농촌지역 주민의 계절 적응 연구

정영옥 · 최정화*

동신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가정학과

Seasonal Adaptation of Rural Residents with focus on Wearing Contents

Jeong, Young Ok and Choi, Jeong Wha*

Dept. of Colthing and Textiles, Dongshin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Col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 론

생물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존에 적합하도록 변화하는 것을 환경적응이라고 한다. 인간의 환경적응 방법으로는 환경변화에 대해 인체의 생리기능 자체가 변화하여 대응하는 생리적 적응방법과 의복, 음식, 주거, 냉난방, 자세 등으로 대응하는 문화적 적응방법이 있다(鄭文植 등, 1988 : 宇留野勝正, 1988).

인간이 처해있는 여러 환경중에서도 온열환경은 인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인체의 생리기능, 특히 체온조절기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의복착용으로 외부 온열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 조절함으로써 쾌적 온열환경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楠幹江, 1990).

Yaglou (1928)는 계절이 변화함에 따른 감각온도의 변화는 의복과 적응의 영향이 크다고 하였고, 따라서 의복은 쾌적온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으며 여름의 쾌적범위 연구에서 착의량에 따라 감각온도의 쾌적범위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Yaglou 와 Messer (1948)에 의하면 쾌적온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낮는데 착의량과 의복종류에 따라서 쾌적정도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奥窪(1981)에 의하면 온열적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중에 착

의량과의 상관도가 가장 높아 착의량이 쾌적온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외부 온열환경과 함께 착의량은 인체의 적응능력과 쾌적 온열환경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4계절을 갖고 있는 지역의 의생활에 대한 계절변동을 연구하면 계절에 순응하기 위한 환경적응 수단으로써 의복이 어떻게 이용되는가를 규명할 수 있고 나아가 착용자의 내한 내열성에 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후변화 즉 계절변동에 따라서 실내 온열환경을 조절함과 함께 착의를 조절하여 적응하게 되고 이로써 형성된 착의습관은 그 사람의 체온조절기능과 나아가서는 내한 내열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뚜렷한 4계절의 변화를 갖는 일본은 1971년 국제 생물학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4계절에 걸쳐 일본 전역의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전국 의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본인의 실내착의와 계절 적응에 관해 조사연구한 바 있고(戶田 嘉秋, 1983) 이외에도 각종 온열환경하에서의 착의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실태조사등이 다수 수행되고 있다.(藤本 尊子, 1983 : 大野 靜枝, 1989 : 奥窪 朝子, 1987 : 辻啓子, 1988).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착의량에 대한 연구(김순자, 1981 : 박우미, 1982 : 유숙희, 1983 : 심부자, 1984 : 송명건, 1986 : 박숙희, 1987 : 이원자, 1987)가 수

행되어 왔으나 전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조사는 실시된 바 없고 주로 연구대상 범위가 연령별로 학생층에,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우리나라 국민의 전반적인 착의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1989년 7월부터 1990년 4월까지 전연령층에 걸친 농촌지역 주민의 착의실태를 조사하여 착의량의 계절별, 성별, 연령별 차이와 농촌지역 주민의 계절적응력을 규명한 바 있다(정영옥, 1991). 본 연구에서는 위 연구에서 나타난 계절별 착의량의 변화를 착의내용 즉 착용의복 종류, 착의매수, 의복의 재료와 형태면에서 분석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계절적응을 위한 착의내용의 변화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

조사지역은 경기, 강원, 충남, 전남, 경북의 농촌 지역으로 그림1과 같고 실외 환경조건은 표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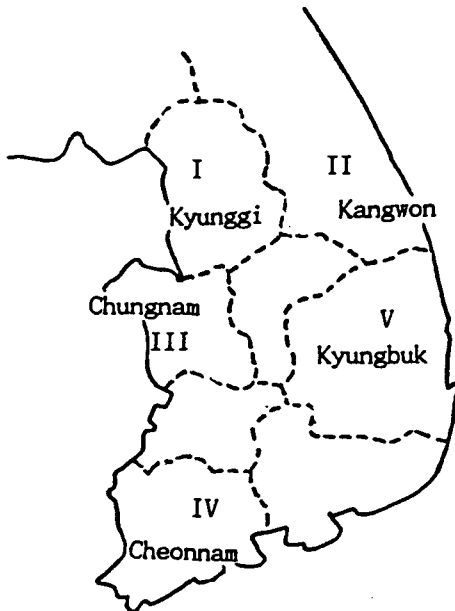


Fig. 1. The regions selected for present study.

Table 1. Outdoor environmental conditions of each region.

Season	Region	Temperature (°C)	Humidity (%)	Air Movement (m/sec)
Spring	I	11.8	64	1.3
	II	15.7	66	2.2
	III	10.6	66	1.5
	IV	13.2	62	2.0
	V	11.0	58	1.7
Summer	I	25.8	81	1.0
	II	24.3	81	1.0
	III	28.2	83	1.8
	IV	27.4	82	2.9
	V	25.3	77	2.7
Autumn	I	10.3	66	1.1
	II	12.6	69	1.2
	III	10.4	68	1.5
	IV	14.8	66	1.5
	V	13.0	60	1.4
Winter	I	-8.1	59	2.0
	II	-11.0	49	1.8
	III	0.0	59	2.1
	IV	-0.5	44	1.9
	V	1.4	62	2.0

Region * I : Kyunggi
 II : Kangwon
 III : Chungnam
 IV : Cheonnam
 V : Kyungbuk

조사대상자는 각 도에서 40농가씩 총 200농가를 임의 선정 후 이들 농가의 전 가족을 조사대상자로 정하여 동일인을 대상으로 4계절 착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한 계절이라도 조사에 결손이 있는 사람은 조사에서 제외시켰다. 조사대상자는 남녀 총 631명으로 연인원 2,524명 이었고 성별, 연령별 분포는 표2와 같다.

2. 조사기간

조사기간은 1989년 7월부터 1990년 4월까지로,

Table 2. Number of subjects.

Age (years)	Male	Female	Total
3-7	13	20	33
8-13	45	32	77
14-19	32	42	74
20-29	13	25	38
30-39	60	73	133
40-49	59	46	105
50-59	48	59	107
over 60	34	30	64
Total	304	327	631

조사시기는 인체의 생체리듬을 고려하고 각 계절의 대표적 기상상태를 보이는 시기를 택하여 1989년 7월말에 여름조사를, 1989년 10월 중순에 가을조사를, 1990년 1월 중순에 겨울조사를, 1990년 4월 중순에 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일은 지역별로 기상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며 맑은 날을 택하여 2~3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3.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착의조사는 국제생물학 사업계획의 의복조사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한 의복조사표를 이용하여 훈련된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대상자의 성, 연령, 직업 등 일반사항

나. 조사대상자의 신장 및 체중-신장계와 체중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高比良의 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체표면적을 산출하였다.

$$A = (W^{0.425} \times H^{0.725} \times 72.46) / 10,000$$

A=체표면적 (m²)

H=신장 (cm)

W=체중 (kg)

다. 조사당시의 실내외 온도 및 한서감각-실내외의 온도와 습도를 어거스트 한단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조사 당시 피험자가 느끼는 한서감을 ASHRAE의 정신심리적 7등급으로 다음과 같이 답하도록 하였다.

1. 매우 덥다.

2. 덥다.

3. 따뜻하다.

4. 쾌적하다.

5. 서늘하다.

6. 춥다.

7. 매우 춥다.

라. 상, 하의 착의 내용 및 의복중량-실내에서의 상, 하의 착의매수와 각종의 의복종류, 착의상태로 본 의복의 형태(상의에서는 네크라인의 상태, 소매길이, 옷길이, 겹수, 하의에서는 옷길이, 겹수) 및 재료에 대한 사항을 조사, 기록하고 각 의복의 무게를 접시지시 저울(용량 2kg, 감도 1g)로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착용의복의 종류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 점을 감안하여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로 적도록 하여, 상의에서 브래지어, 런닝셔츠, 내의, 블라우스, T셔츠(앞트임이 없으며 메리야스 직조로 된 셔츠), 스웨터, 점퍼, 조끼 등으로 답하게 하고 하의에서는 팬티(brief나 drawers포함), 내의, 속바지(팬티나 내의를 입은 후 바지나 치마 안쪽에 입는 바지는 전부 포함), 바지, 치마 등으로 답하게 하였다.

착의량은 착용자의 체격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 지므로 단위 체표면적당 의복중량(g/m²)으로 하였고 총착의량, 내의량, 외의량, 상의량, 하의량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때 양말과 머플러는 외의에, 원피스와 코트류는 상의에, 타이즈는 하의에 포함시켰다.

4. 통계분석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SPSS PC⁺를 이용하여 각 항목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빈도수를 계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성별, 내외의별로 본 의복 착용율의 계절변화

계절별 남녀의 의복종류별 착용율을 그림 2, 3, 4, 5에 나타내었다.

가. 남자 내의-연중 착용되는 남자의 내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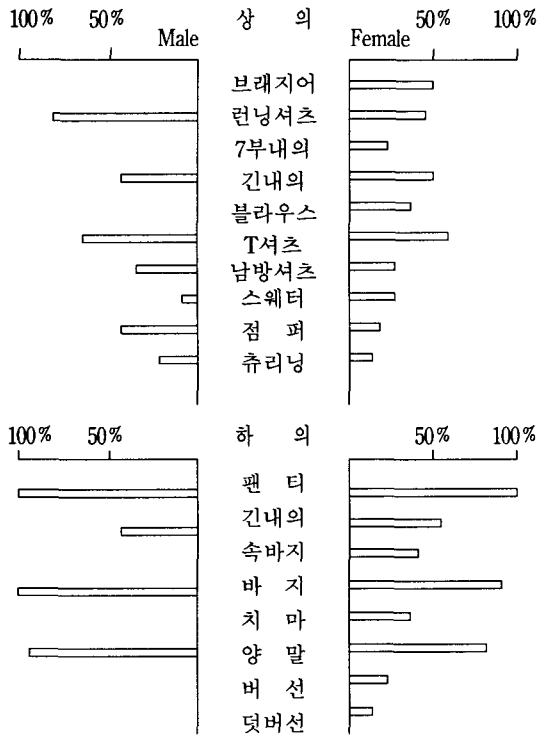


Fig. 2. Rate of wearing each garment worn in sp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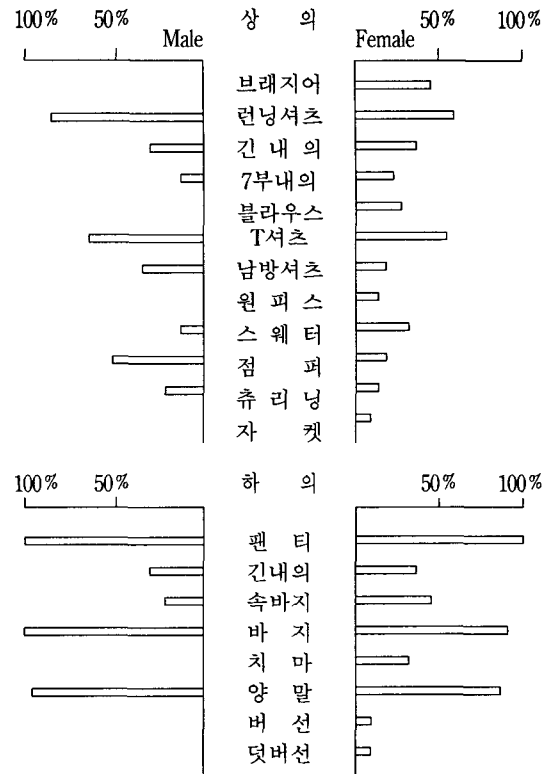


Fig. 4. Rate of wearing each garment worn in autum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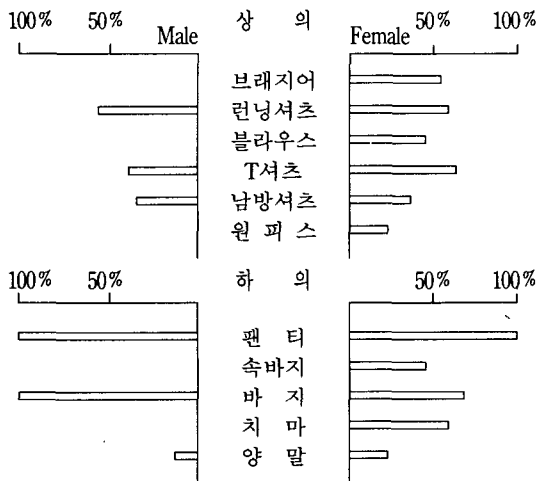


Fig. 3. Rate of wearing each garment worn in summer.

런닝셔츠, 팬티, 긴내의였다. 런닝셔츠의 착용율은 봄, 가을이 가장 높아 71%~84%였고 여름이 55%, 겨울이 42%였다. 겨울에는 긴내의를 착용하기 때문에 런닝셔츠 착용율이 낮아지고 여름에는 내의

를 입지 않고 외의 1점만을 입는 경향이 있으므로 런닝셔츠의 착용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긴내의의 착용율은 겨울에 70%, 봄에 34%, 가을에 18%로서 가을보다 봄이 높았다.

나. 여자 내의-연중 착용되는 여자의 내의는 브래지어, 런닝셔츠, 7부내의, 긴내의, 팬티, 속바지 등으로 남자의 내의보다 종류가 다양하고 착용율도 높았다. 브래지어의 착용율은 연중 40%~47%로 계절에 따라 별 변화가 없었다. 런닝셔츠의 착용율은 겨울에 낮고 봄, 여름, 가을은 비슷하여 45%~50%로 남자의 경우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봄, 가을, 겨울에 긴내의 착용율은 남자보다 높았고 남자들이 착용하지 않는 속바지, 7부내의 착용율도 연중 12%~29%로 나타나서 여자의 내의량이 남자보다 많았다. 이는 착의량에서 여자의 내의 중량이 남자의 내의 중량보다 많았던 이유가 된다.

다. 남자 외의-연중 주로 착용되는 남자의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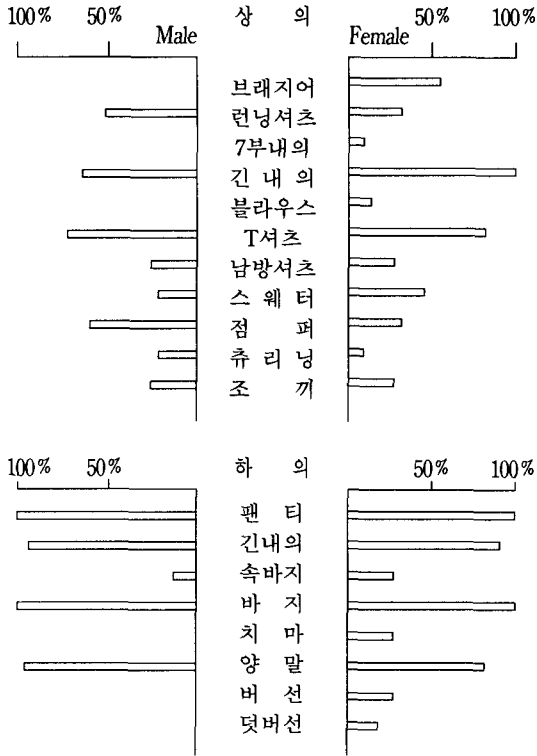


Fig. 5. Rate of wearing each garment worn in winter.

의는 상의로는 T셔츠, 남방셔츠, 점퍼, 츄리닝, 스웨터, 조끼 등으로 계절에 따른 착용율의 변화를 보였으나 하의는 연중 바지만을 착용함으로써 계절변화를 볼 수 없었다. 즉 계절에 따른 착의조절은 하의보다 상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많이 착용되는 남자 상의는 T셔츠로 여름을 제외하고 연중 50% 이상의 착용율을 보였다. 남방셔츠의 착용율은 여름에는 35%로 T셔츠와 비슷하나, 봄, 가을에는 20%~30%, 겨울에는 14%로 줄어들어 신체를 보온하기 위한 의복으로는 잘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점퍼는 여름을 제외한 세 계절에 34%~56%의 착용율을 보여 많이 착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겨울철 실내 착의의 경우에 보온에 효율적인 스웨터는 착용율이 8%에 불과하였다.

라. 여자 외의-연중 주로 착용되는 여자의 외의는 상의로는 T셔츠, 블라우스, 남방셔츠, 스웨터, 점퍼, 츄리닝, 조끼, 자켓 등이고 하의로는 바지, 치마였다. 상의로 가장 많이 착용되는 의복은 남자의

경우에서와 같이 T셔츠였고 연중 50% 이상의 착용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블라우스와 남방셔츠, 스웨터가 주로 착용되는데 블라우스의 착용율은 겨울을 제외한 봄, 여름, 가을에 20%~30%의 착용율을 보이고 스웨터는 겨울에 착용율이 높아져 38%로 나타났다.

하의는 치마보다 바지의 착용율이 연중 높게 나타나서 봄, 가을, 겨울에는 바지 착용율이 80% 이상이고 여름에는 이보다 매우 낮은 55%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자의 경우 보온과 활동을 위해 바지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 양말류-양말류의 착용율은 여름에 5%~10%, 봄, 가을에 76%~84%, 겨울에 94%~95%였고 남자는 양말을 착용했고 여자는 양말을 주로 착용하되 버선, 덧버선의 착용자도 소수 보였다.

이상에서 성별, 내의의별 의복착용율의 계절변화를 종합해 볼 때 내의 및 외의에서 여자의복이 남자의복보다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함을 알 수 있다. 戶田(1983)은 계절변화에 따라 남자는 상의를 변화시키지만 여자는 상하의를 변화시켜 적응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여자의복이 착용 목적에 따라 보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大野(1989)도 여자 의복은 남자 의복에 비해 종류가 많고 여자는 남자에 비해 변화가 풍부한 착장을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들의 결과는 한국의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중 착용되고 있는 의복의 종류를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착용의복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남자의복의 경우 외의에서 연중 착용되는 의복의 종류가 T셔츠, 남방셔츠, 점퍼, 바지가 대부분이며 조끼, 가디간, 스웨터, 자켓 등의 착용은 극히 적었다. 여자 의복에서도 블라우스, T셔츠, 남방셔츠가 대부분이고 스웨터, 가디간, 조끼, 자켓 등의 착용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착용의복 종류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한복의 착용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李의 연구(이양후, 1968)에서는 착용되는 의복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피복을 소지하고 있는 정도를 조사한 것이나 양복과 한복의 피복소지수에 있어서 농촌지역, 30대 이후 여자, 농업 중

사자에게서는 양복보다 한복이 많다고 하였다. 또 양잠농가 부녀자의 의복변천에 관한 연구(이양후, 1970)에서는 최근 2년 동안 새로 장만한 의복에서 양복이 62%, 한복이 38%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년이 흐른 후의 본 조사에서는 조사지역이 농촌임에도 불구하고 한복착용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아 이제 한복은 특별한 경우에만 착용되어 특수복화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 辻啓子の 연구(1987)에서 노인남자의 경우 和服 착용이 0.5%이나 노인여자의 경우 겨울 36%, 봄 25%, 가을 11%로써 여름을 제외하고는 和服착용이 평균 24%를 보이고 있어 우리와는 좀 다른 실태를 나타내고 있다.

2. 착의 매수

가. 상의 착의매수-계절별 상의 착의매수의 빈도수를 표 3에 나타내었다.

Table 3. Frequencies of number of clothing for upper body. (%)

Season	Sex	Number				
		1	2	3	4	5
Spring	M	-	61	37	2	-
	F	-	42	52	6	-
Summer	M	52	48	-	-	-
	F	29	61	10	-	-
Autumn	M	-	52	46	2	-
	F	-	39	52	9	-
Winter	M	-	21	64	15	-
	F	-	13	57	28	2

상의는 남녀 모두 봄, 가을에는 2~3매, 여름에는 1~2매, 겨울에는 3매를 착용한 경우가 많았다. 계절별 평균 착의 매수는 봄, 가을이 2.6매, 여름이 1.7매, 겨울이 3.1매이고 표준편차는 0.5~0.6매로 나타났다. 즉, 계절에 따라 상의 착의매수에 변화를 보여 여름보다 봄, 가을에는 1매를 더 입고, 봄, 가을보다 겨울에 0.5매 정도를 더 입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승희(1987)의 연구에서는 겨울 교실내에서 여중

생들의 상의 착의매수가 5매인 경우가 50%를 넘고 심부자(1985)의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상의를 여름 3매, 봄, 가을 4매, 겨울 5매 입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보다 많았다. 이는 위 연구 결과가 실외복 착의매수이고 이들의 착의량 자체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연령별 성별 상의 착의매수의 변화는 그림 6과 같다. 남자는 연령에 따라 착의매수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겨울을 제외하고는 14~39세의 착의매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브래지어도 1매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며 이를 무시한다면 여자의 착의매수도 연령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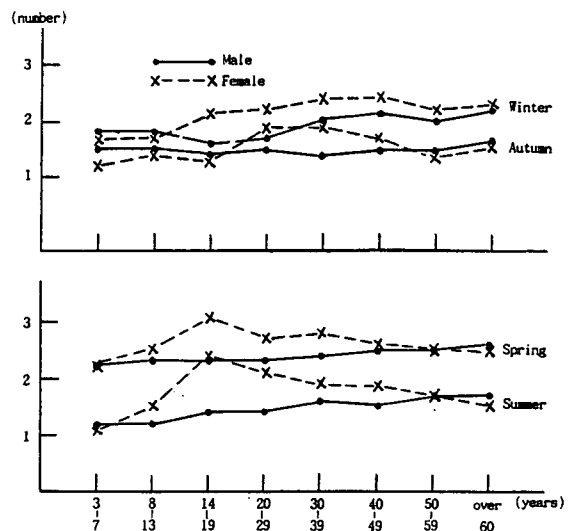


Fig. 6. Variation of the number of clothing for upper body by the age.

나. 하의 착의매수-계절별 하의 착의매수의 빈도수를 표 4에 나타내었다. 하의는 남녀 모두 봄, 가을에는 2~3매, 여름에는 2매, 겨울에는 3매를 착용한 경우가 많았다. 평균 하의 착의매수는 봄, 가을이 2.5매, 여름 2.1매, 겨울 3.0매이고 표준 편차는 0.4~0.5매로 나타났다. 하의 착의매수에서도 계절 변화를 보였으나 상의에서 보다 변화폭이 적어서 여름보다 봄, 가을에 0.5매를 더 입고, 봄, 가을보다 겨울에 0.5매를 더 입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4. Frequencies of number of clothing for lower body. (%)

Season	Sex	Number			
		1	2	3	4
Spring	M	—	65	35	—
	F	—	40	55	5
Summer	M	99	1	—	—
	F	7	74	19	—
Autumn	M	—	12	84	4
	F	—	6	82	12
Winter	M	—	12	84	4
	F	—	6	82	12

연령별 성별 하의 착의매수의 변화는 그림 7과 같다. 20세 이후에 연령에 따른 착의매수의 증가를 보였다. 藤本의 연구(1989)에서도 나이가 들면서의복매수가 증가하고 특히 발부위의 보온에 유의하며 반면에 젊은이들은 하지부의 착의매수가 적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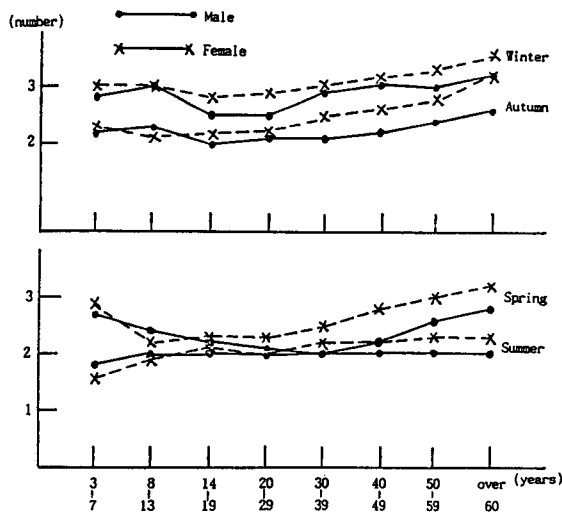


Fig. 7. Variation of the number of clothing for lower body by the age.

3. 계절별 대표적 착장형태

가. 봄-봄에 남자는 상의로 런닝셔츠+T셔츠

차림이 가장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7세 이하 어린이와 60세 이상의 노인에 있어서는 긴내의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의는 팬티+바지+양말 차림이 일반적이었고 상의에서와 같이 7세 이하 어린이와 60세 이상의 노인에 있어서는 긴내의를 착용한 경우가 70%~80%였다. 반면에 14~19세의 연령층에서는 긴 내의를 착용한 사람이 5%에 불과하여 연령에 따라 봄철 긴내의 착용율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봄에 여자는 상의로 브래지어+런닝셔츠+T셔츠의 차림이 많았다. 하의로는 팬티+바지+양말의 형태가 가장 많았다. 여자의 경우도 남자와 같이 7세 이하와 60세 이상의 노인에서는 긴내의 착용율이 70%~80%에 달했다.

나. 여름-여름에 남자는 상의로 런닝셔츠+T셔츠의 차림이 많았다. 하의로는 팬티+바지+양말의 형태가 가장 많았다. 여자의 경우도 남자와 같이 7세 이하와 60세 이상의 노인에서는 긴내의 착용율이 70%~80%에 달했다.

나. 여름-여름에 남자는 상의로 런닝셔츠+T셔츠를 착용하거나 T셔츠만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착장형태의 특징을 보면 30세 미만에서는 T셔츠나 런닝셔츠 하나만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 비하여 30세 이상에서는 런닝셔츠+T셔츠 혹은 런닝셔츠+남방셔츠를 입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하의로는 거의 전부가 팬티+바지의 착장형태로 연령별 특징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여름에 여자는 상의로 브래지어+T셔츠 혹은 런닝셔츠+T셔츠가 가장 많았다. 연령별 특징을 보면 14~19세의 연령에서 약 40%가 브래지어+런닝셔츠+T셔츠의 착장형태를 보이고 7세 미만에서는 90%가 T셔츠나 런닝셔츠 혹은 원피스 등을 1겹만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청소년들은 더워도 옷을 갖추어 입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름에 여자 하의는 팬티+바지 혹은 팬티+치마의 형태가 많았고 20세 이후의 연령에서 20%정도가 속바지를 착용하고 있었다.

다. 가을-가을에 남자는 상의로 런닝셔츠+T셔츠의 착용이 가장 많고 여기에 점퍼를 더 입는 사람도 30%정도 나타났다. 한편 긴내의의 착용율은 전체적으로는 18%, 7세 이하와 60세 이상에서는 35%정도로 봄보다 훨씬 적은것으로 나타났다. 하의

로는 팬티+바지+양말이 대부분이었고 긴내의 착용은 상의와 같았다.

가을에 여자는 상의로 브래지어+런닝셔츠+T셔츠 혹은 런닝셔츠+T셔츠가 가장 일반적인 착용형태였다. 긴내의 착용율은 7세 이하와 60세이상에서는 40%였고 그의 연령에서는 거의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봄보다 착용율이 낮다. 하의는 팬티+바지+양말 혹은 팬티+속바지+바지+양말의 착용형태가 많았다.

라. 겨울-남자는 상의로 긴내의+T셔츠+점퍼 차림이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긴내의 착용율은 83%였으나 14~19세 연령에서는 불과 35%였다. 60세 이상에서는 상의로 4겹 이상 입은 사람이 30%였고 14~19세 에서는 2겹 입은 사람이 40%였다. 하의로는 팬티+긴내의+바지+양말이 가장 많았다.

겨울에 여자는 상의로 브래지어+긴내의+T셔츠 혹은 긴내의+T셔츠+스웨터 차림이 일반적이었다. 하의는 팬티+긴내의+바지+양말이 가장 많았다. 여자의 경우도 남자에서와 같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긴내의 착용율이 현저히 증가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남자하의 착용형태의 계절 변화는 봄, 여름, 가을에는 팬티+바지의 차림으로 거의 변화가 없고 겨울에는 여기에 긴내의를 더입는 정도이다. 이에 비해 여자의 하의는 좀 더 계절변화를 보였으며 여름에는 스커트의 착용이 많아졌다. 상의는 남녀 모두 계절에 따라 하의보다 다양한 변화를 보였다.

또한 연령별 착의특징을 살펴볼 때 젊은층에서 내의류의 착용이 적었는데 내의류는 분비물의 흡수등 위생상의 기능이 높은 피복임을 생각할 때 문제점으로 보여진다. 宇留野(1990)는 젊은 여성들이 브래지어를 제외한 속옷을 잘 입지 않고 복부가 덮이지 않는 팬티착용으로 복부가 냉각되며 이로써 생리통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靑水(1987)는 연령에 따라 내의착용이 달라지고 젊은층에서 내의류 착용이 저조해지고 있어 이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4. 의복의 재료와 형태

남, 여 의복의 재료와 형태가 계절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연중 많이 착용되는 의복을 중심으로 성별, 의복 종류별 의복의 재료와 형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남자 의복

-런닝셔츠: 재료는 계절에 관계없이 면이 98% 이상이었다. 형태면에서도 계절변화를 볼 수 없어서 연중 착용되는 런닝셔츠의 형태는 네크라인이 개방적이고 소매가 없으며(소매없는것 90% 이상, 3부소매 10%이하) 옷길이는 하복부까지 이다.

-T셔츠: 재료는 연중 합섬이 가장 많아서 45%~5%였다. 단 여름에는 T셔츠의 재료로 면의 사용이 많아져 35%정도를 차지하는 반면에 봄, 가을, 겨울에는 면의 사용이 적어져 10%~15% 정도였다. T셔츠 형태의 계절변화는 네크라인과 소매길이에 보여지는데 여름의 네크라인은 “개방적” 40%, “보통” 50%인데 비하여 봄, 가을, 겨울에는 “개방적” 10% 내외, “보통” 60% 내외, “막힘” 20% 내외였다. 소매길이는 여름에 “3부소매” 60%, “5부소매” 30%인데 비하여 봄, 가을, 겨울에는 90%이상 긴소매였다. 옷길이는 계절변화와 관계없이 대퇴부위까지였다.

-남방셔츠: 재료는 연중 합섬과 혼방이 많아서 이 2재료가 70% 이상이었다. 단, 여름에는 다른계절에 비해 면의 사용이 늘고 겨울에는 줄어 계절변화를 보였다. 형태의 계절변화는 T셔츠에서와 같이 네크라인과 소매길이에 보여지는데 여름에 네크라인은 “개방적”이 50%이나 다른 계절에는 “보통”이 90% 이상이었다. 소매길이는 여름에는 “5부소매” 52%, “3부소매” 30%인데 비하여 다른계절에는 98% 이상 긴소매였다. 옷길이에서는 계절변화를 볼 수 없었으며 연중 옷길이는 대퇴부위까지였다.

-점퍼: 점퍼는 여름에는 거의 착용되지 않으나 봄, 가을, 겨울에는 착용율이 40%~50% 정도 되는데 재료는 계절에 관계없이 합섬과 혼방이 많았다. 겹수에서는 봄, 가을에는 1겹이 많고(70%) 겨울에는 안감이 있는 것이 많았다. 네크라인, 소매길이, 옷길이 등에서는 계절변화를 볼 수 없었다.

-팬티: 재료는 계절에 관계없이 면이 100%였다. 형태면에서도 계절의 차이를 볼 수 없었다.

-바지: 재료는 면, 합섬, 혼방이 약간 증가

하는 것으로 보이나 T셔츠나 남방셔츠 같은 상의에서는 변화보다 작았다. 옷길이에 있어서는 “무릎까지” 34%, “종아리 중앙까지” 30%로 반바지의 착용이 많았으나 봄, 가을, 겨울에는 98%이상 긴바지를 착용하였다. 바지 겹수는 연중 90%이상 1겹으로 계절변화를 볼 수 없었다.

나. 여자 의복

앞의 “의복 착용율”에서 여자의복은 남자의복에 비해 계절에 따라 착용되는 의복 종류 자체가 다양한 변화를 갖는 것으로 보였다. 여기에서는 연중 착용율이 비교적 높은 브래지어, T셔츠, 남방셔츠, 팬티, 바지, 치마 등의 계절에 따른 재료 및 형태의 변화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브래지어 : 형태는 연중 변화 없으나 재료에서는 여름에 면이 50%이나 그의 계절에서는 80% 이상이 합섬으로 여름에 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런닝셔츠 : 재료는 연중 변화없이 면이 98% 이상이었고 형태도 계절변화 없이 목이 많이 파이고 소매가 없으며 옷길이는 대퇴위까지 였다.

-T셔츠 : 재료는 여름에는 50% 이상이 면이었고 다음이 합섬으로 30% 정도였다. 봄, 가을, 겨울에는 면이 현저히 줄어 20% 정도였고 합섬의 사용이 늘어 50% 정도 였다. 네크라인과 소매길이에서 계절변화를 보여 네크라인은 여름에 “개방적”이 60%이었으나 봄, 가을, 겨울에는 “보통”, “막혀있다”가 각각 58%, 30% 이상으로 증가하고 “개방적”은 10% 미만이었다. 옷길이는 계절변화가 없어 연중 옷길이는 80% 이상이 하복부까지 였다.

-남방셔츠 : 재료는 연중 합섬, 혼방이 각각 40% 정도로 많고 계절에 따른 차이는 볼 수 없었다. 네크라인과 소매길이에서 계절변화를 보여 네크라인이 여름에 “개방적” 50%인 것이 봄, 가을, 겨울에는 “보통” 70% 이상이 되었다. 소매길이도 여름에 5부소매, 3부소매가 각각 50%, 30% 였으나 봄, 가을, 겨울에는 98% 이상이 긴소매였다. 옷길이는 연중 변화없이 대퇴위까지 였다.

-팬티 : 재료는 연중변화 없이 면이 98% 이상이었다. 형태도 연중변화 없으며 길이는 대퇴위

까지 였다.

-바지 : 재료는 연중 별 변화없이 면, 합섬, 혼방이 비슷한 정도였고 형태에 있어서 옷길이가 계절변화를 보여 여름에는 무릎까지 35%, 대퇴중앙부까지 20%, 종아리 중앙부까지 20%로 반바지가 많이 착용되나 봄, 가을, 겨울에는 95% 이상이 발목까지로의 긴바지였다.

-치마 : 재료는 계절변화 없이 50% 이상이 합섬이고 40% 정도가 혼방이며 면은 10% 내외로 바지에 비해 면의 사용이 적었다. 옷길이는 여름에 짧아지고 겨울에 길어지는 계절변화를 보이거나 바지보다는 작았다.

이상 계절에 따른 남녀 의복의 재료 및 형태변화를 종합 고찰해 보면 의복의 재료면에서 남, 녀 의복 모두 런닝셔츠와 팬티 등 속옷은 계절변화 없이 면이 98% 이상 이었다. 단, 여자 속옷인 브래지어는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에는 면이 많아졌다. 겉옷에 있어서도 남자 T셔츠, 남자 남방셔츠, 여자 T셔츠등에서 여름에 면이 다른 계절에 비해 약간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계절변화를 볼 수 없었다. 또한, 의복 재료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는 없었다. 한편 戶田(1983)의 연구에서 일본인의 실내착의에 있어서 겨울에 면이 줄고 합섬과 毛의 비율이 증가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毛의 증가를 볼 수 없었다.

의복의 형태면에서 브래지어, 런닝셔츠, 팬티 등 속옷에서는 계절변화를 볼 수 없었다. 그러나 T셔츠, 남방셔츠, 바지 등 겉옷에서는 네크라인과 소매길이, 하의 옷길이 등에서 여름과 그의 계절간에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즉 여름에는 다른 계절에 비하여 네크라인의 개방도가 높아지고 소매길이가 짧아지며 바지나 치마의 옷길어도 짧아졌다. 그러나 여름을 제외한 봄, 가을, 겨울간에는 네크라인, 소매길이, 바지길이 등에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의복의 형태에서 남, 녀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여름의 네크라인, 여름의 소매길이, 여름의 하의 길이 등이었다. 즉, 여름의 네크라인에서 여자가 더 개방적이었고 소매길이는 더 짧았으며 하의 길이도 여자의복이 더 짧았다. 그의 의복형태와 의복 재료에서는 남, 녀 차이를 볼 수 없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촌지역 주민의 착의 실태를 조사하여 계절별 착의내용의 변화를 착용 의복의 종류, 착의매수, 의복형태, 재료면에서 분석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이 계절적응을 위해 착의내용에 어떤 변화를 갖는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계절에 따라 의복종류별 착용율에 변화가 있었으며, 내의와 외의에서 여자의복이 남자의복보다 더 많은 계절변화를 보였다.

2. 계절에 따라 착의매수에 변화가 있었으며, 하의보다 상의에서 더 많은 계절변화를 보였다.

3. 계절에 따라 착장형태에 변화가 있었으며 하의보다 상의에서, 남자의복보다 여자의복에서 더 많은 계절변화를 보였다.

4. 계절에 따른 의복재료 변화는 면이 여름 외의에서 다른계절에 비해 약간 증가하는것을 제외하고는 계절변화를 볼 수 없었다. 의복의 형태변화에서는 외의의 넥크라인과 소매길이, 하의 옷길이 등에서 여름과 다른 계절간에 차이가 있어 여름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넥크라인의 개방도가 높아지고 소매길이와 하의 옷길이가 짧아졌으며, 이같은 변화는 남자의복보다 여자의복에서 더 뚜렷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농촌지역 주민들의 착의내용은 계절에 따라 의복 착용율, 착의 매수, 착장형태 등에서 변화는 하고 있으나 연중 선택하는 피복의 종류가 너무 단조로워 환경조건과 용도에 따라 보다 다양한 의복을 선택하도록 하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젊은층에서 지나치게 내의류 착용을 생략하는 것은 위생상 좋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의생활 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 박숙희, 1987, 교실환경에 따른 여중생의 착의량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우미, 1982, 온열환경변화에 따른 착의실태의 위생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명건, 1986, 착의량이 운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부자, 최선희, 1984, 비닐하우스내의 착의에 관한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22(4) : 1-10.
- 이양후, 1968, 한국인 피복소지 적정량에 관한 연구, 서울대 논문집(농생계), Vol. 19.
- 이양후, 1970, 한국양잠부녀자의 의복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 잠사학회지, Vol. 11 : 87-94.
- 이원자, 1987, 착의량이 유아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문식, 구성희, 이성호, 1988, pp.13-21, 환경위생학, 신광출판사.
- 大野 精枝, 飯塚 幸子, 田村 照子, 中橋 美智子, 三平和雄, 吉田 敬一, 1986, 各種 溫熱環境下の着衣標準 設定に關する實態調査, 第2報, 衣生活, 29(6) : 31-35.
- 辻啓子, 1987, 高齢者の戶外おける着衣分析1, 日本家政學會誌, 38(4) : 333-338.
- 辻啓子, 1988, 高齢者の戶外おける着衣分析2, 日本家政學會誌, 39(7) : 751-758.
- 楠幹江, 1989, 衣服の健康學(上), 衣生活, 32(1) : 21-26.
- 宇留野 勝 正, 1983, 健康の生態, 衣生活, 248 : 51-55.
- 宇留野 勝 正, 1983, 環境と健康, 衣生活, 246 : 33-37.
- 奥窪 朝子, 酒井 恒美, 1981, 環境溫度と着衣量の關係をお考わる, 織消誌, 22(6) : 210-216.
- 清水 裕子, 戸塚 歌子, 大塚 伊里子, 松島 貫子, 1987, 下着の着用狀態に關する調査, 織消誌, 28(1) : 23-30.
- 戸田 嘉秋, 1983, A Survey on Seasonal Adaptation of Indoor Clothing Life in Japan : Clothing Weight, J. Sci. Clo., 26(1) : 3-12.
- 戸田 嘉秋, 1983, A Survey on Seasonal Adaptation of Indoor Clothing Life in Japan : Clothing Materials, Shapes and Construction, J. Sci. Clo., 26(2) : 1-9.
- C.P.Yaglou, Philip Drinker, 1928. The Summer Comfort Zone, J. of Industrial Hygiene. 10(10).
- C.P.Yaglou, Ann Messer, The Importance of Clothing in Air Conditioning, JAMA, 117(15).